

[호랑이를 닮아 가두면]
완벽하지 않아도 멋진 쿨리에게

쿨리야, 안녕? 나는 김포 고촌에 살고 있는 12살 연지야.
놀랐지? 그래 맞아. 너랑 동갑이야. 그리고 너처럼 시골에 살아. 너를 만났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 '우주적 끌림'을 느꼈어. 왜냐면 나도 너처럼 변화가
많았거든. 나는 무려 4번이나 전학을 했어. 난 아직 5학년인데 4번 전학
이라니, 믿어지니? 나같은 친구는 주변에 없는데 너를 만나니 사실 조금 재밌어.

그런데 너를 알아가면서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 특히 네가
책 첫 문장에 스스로를 '투명인간'이라고 했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나중에 네가 '조아여(조용한 아시아 여자아이)'라고 할 때가 알려졌어.
네가 나를 스스로 맘에 들지 않아 미워하고 있다는 걸 말하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너는 절대 '조아여'가 아니라고 크게 말했거든. 너에게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세상이 마음 속에 숨어있잖아. 히히, 하긴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하지 않아도 너는 스스로 깨우치게 되잖나 말이야.

나는 특히 네가 라미에게 통쾌하게 복수했을 때 소리를
지를 났 해. 여름에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달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최고였어. 어떻게
진흙을 푸딩에 넣을 생각을 했어?

